



한국계육산업발전사 발간 기념회

● 서울 외교센터 리더스클럽에서 가져



본회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외교센터 리더스클럽에서 본회 김홍국 회장, 한국계육산업발전사 박영인 편찬위원장 및 편찬위원, 대한수의사회 이우재 회장, 前 천호그룹 이계조 회장 등 업계 관계자와 단체장, 본회 회원사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계육산업발전사 발간 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서 박영인 편찬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40여명이 이번 책자편찬에 참여해 흡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발전사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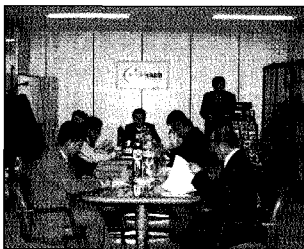
또한 김홍국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계육부문은 어느 농업·축산 부문보다 자유시장체제에서 기업화를 선도해 왔기 때문에 그 역동적인 변화과정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이 산증인들에 의해 사실대로 기록돼 있으니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는 현재 국내 계열화 사업의 토대를 마련해준 전 천호그룹 이계조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마니커 한형석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계육산업발전사를 받아보실 분은 본회(031-707-5722)로 연락하면 된다.

제 10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 살모넬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기로 결의



본회는 살모넬라 방역대책 방안 및 종계 유효기간 경과 사용(강제환우)금지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10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10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살모넬라와 관련해서 김홍국 회장은 “양계산업에 있어서 살모넬라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질병”이라고 강조하고, “살모넬라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는 정부나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협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 회원사들은 이날 종계의 유효기간 경과 사용(강제환우)금지를 결의하고, 법적제도마련을 위해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본회 회원사는 앞으로 강제환우하는 종계·부화장에서 생산한 종란 및 병아리를 2003년 1월 1일부터 일체 구입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2002우리축산물브랜드전 참가

● 이벤트 및 닭고기 시식회 가져



2002우리축산물브랜드전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열려 한우, 돼지, 닭고기 등 축산물 브랜드 업체 111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본회 회원사로는 (주)하림, (주)마니커, (주)화인코리아, 한일농원 등이 참가하여 자사 브랜드 제품 홍보 및 시식회를 가졌다.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축산물브랜드전은 지난해에 비해 규모는 다소 축소됐지만, TV 홈쇼핑 생중계 및 유명인예인들이 직접 참가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한몫을 했다.

본회는 11월 2일 연예인초청 축산물 소비홍보 부대행사에 앞서 '닭벼슬모양 모자뺏기' 게임과 '닭고기 시식회'를 통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닭고기 소비홍보 이벤트를 벌였다.

본회 닭고기 소비홍보 포스터 일본 전문지에 보도

●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 홍보



본회에서 제작한 닭고기 소비홍보 포스터와 기사 일부가 일본의 전국식조신문(全國食鳥新聞) 1면에 게재, 일본 양계업계에 한국산 닭고기의 HACCP 인증과 아울러 본회 품질보증마크가 소개되었다.

본 신문은 포스터에 실린 「HACCP와 품질보증마크가 있는 국내산 닭고기가 안전합니다」라는 문구를 소개하고, 식품의 원료, 제조, 유통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위생관리 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와 농림부의 위생지침을 준수한 회원사가 생산한 닭고기를 본회에서 보증하는 제도인 품질보증마크에 대해 자세히 풀이하였다.

본회는 앞으로도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한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